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지금 허공중에 있어요

허공법문 ②

이제부터 허공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공 속에서 살면서 허공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육신이 허공 속에 살고 있어요. 허공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공 그만 무시하고 있거든. 또 허공 뿐 아니라 이 땅덩어리도 무시하고 있어요. 이 지구덩어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말이야.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왜 그러냐. 바로 내가 허공에 있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색신으로서인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예요. 그런데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 허공을 그만 무시해 버려. 우리가 허공으로 떠돌아서 같이 나가는데 허공을 무시하니 도대체 이젠 상식 밖의 일이에요.

부 변하는 도리 아니예요? 눈 깜빡깜빡 하는 것. 내가 성품이 없는 이 입을 통해서 허공성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입이 얘기한다 이리 하고 있어요. 입이 얘기하는 걸 의지 않기는 했어. 혀나 입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말이예요. 혀바닥이 무슨 성품이 있던가요? 이 입이 성품이 있던가요? 이거는 무형무색인 진짜 나. 진짜 나는 법신자리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놈이 들어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뭘 듣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허공이 생각한 것을 의사 발표할 뿐이지. 이거 내가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허공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크냐 이것부터 생각합시다. 모습 있는 거. 지구도 모습이 있는 것 내 몸도 모습이 있는 것 태양도 모습이 있는 것. 이런 모습이 있는 걸로 비한다면 허공 제일 큰 거예요. 여기 크다고 써 놔요. 다른 말이예요.

리나 이 허공은 크다 적다는 말이 이미 떨어졌어. 그것도 불지 안 해. 크다는 말도 불지 않고 적다는 말도 불지 안 해. 한정이 없거든. 이 허공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허공중에 있어요. 솔직한 말로 색신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 집, 나무, 전부 허공성이예요. 그래서 이리 부서지고 갈라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고, 이 지구 허공성, 우리가 지금 허공에 앉아 있거든요. 진짜 주인공. 이젠 진짜예요. 이거 하나 의 풍주머니예요. 가는 곳이 흙구멍이 불구멍이 뿐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 내라 하고 있거든. 물론 내가 쓰고 있어. 내가 쓰고 있던 것지만 이젠 내가 아니고 이젠 진짜여. 내가 쓰고 있어도 이젠 앞으로 오십 년이나 백년이면 우리가 흙구멍이 불구멍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불구멍이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면 한 줌 흙밖에 안 돼. 흙구멍이 속에 집어넣어서 썩으면 한 삼태기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거예요.

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 지금 우리가 허공중에 있거든. 우리가 늘 그릇된 생각으로 이거 내다 할 때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자, 뇌에 있단지 눈에 있단지 지 코에 있단지 가슴에 있단지 어디에 있나.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이걸 의지할 따름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허공이 어느 정도 크냐. 간단하게 말하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가도 가도 끝없는 거예요. 위로 가도 가도 끝없는 거예요. 밑으로 가도 가도 끝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공부를 하는데, 이 허공문제를 해결 안 하면 생사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허공 말을 하는 거여. 이리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이리 가도 가도 끝없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말이여. 여러분들이 허공을 처리할 권리가 있어. 색신은 여러분이 아니예요. 색신은 성품이 없는데 처리고 맺고 할 거 뭐 있었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여러분,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여러분, 태양계가 부서지고 육체 색계가 막 부서져서 다 날아가 버려. 날아간 후에도 뚜렷하게 있는 여러분. 이 여러분이 허공을 처리할 문제거든. 이러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백봉김기추거사기법문사업회

“
몸뚱이도 허공성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생사 문제를 풀려면
허공 문제 해결해야

을 하기 위해서 썩었는데, 실은 허공 큰 거 아니예요. 그러나 큰 거예요. 만약 크다는 말마다 우리가 달려들면 열만큼 크다는 말이 딱 나와 됩니다. 크다 적다 하면 열만큼 크다. 열만큼이란 무엇이 있어야 크다는 말이 딱 적합해요. 적다 하면 열만큼 적다는 것이 있어야 딱 적다는 말이 되는데, 실은 허공이란 것은 열만큼이란 것을 지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도 가도 끝없는 것이 제일 크다 이렇게 하겠는데, 실에 있어서 크다는 말을 떠난 자립니다. 크다 적다 하는 걸 떠나서 큰 거예요. 크다 하면 열만큼 크다 하는 것이 딱 그대로 수치가 나오니까. 요새말로 서양말 많이 쓰대. 어느 미리쯤 적다는 말이 딱 나와요. 그

우리의 몸은 인간의 집과 같다

2.정삼업진언(淨三業眞言)

“정삼업”은 삼업을 말한다는 것. 음, 사바빠바, 슈파살빠따 말마, 사바빠바 슈도함.

삼업(三業)이란 신(身), 구(口), 의(意)의 세 가지다. 즉, 우리의 몸과 입과 뜻을 밝혀주는 참된 말이라는 것이다. 진언(眞言)은 인도말로 다라니라고 한다. 참된 말, 진정한 말, 진정고 그렇다 하는 말이다.

우리가 가설해서 하는 가언이란 우리 한국어, 영어, 인도어, 중국어, 일어, 산스크리트어 따위, 이른바 민족어는 그 민족 그 사회가 오랜 역사를 거쳐 연연중 가계약(假契約)으로 이루어 놓은 통용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언에 대해서 진언이란 참말이요 한 인간의 참된 소리이기 때문에 구태어 상대자를 설정하지 않고 누구에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연에게 스스로의 감동을 표출한 것이며 그 소리가 자연스레 한 운율이요 음을 띄고 있다. 가령 지금을 겨울밤이라고 하자. 우리가 밤새 자는 동안 눈이 수북이 내렸다.

지리산 상상봉에도, 우리들이 있는 이 봉명산 다솔사에도, 이 도량에도 눈이 왔다. 아침에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한 사람이 부지중 ‘아이 눈 봐! 깨끗도 하지’ 한다. 그럴 때 이 말이 진언이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자연에게 천지(天地)에게 대하여 불쑥 느끼는 감동을 그대로 읊어서 한 말이며 그러기에 진언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그 유니트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모든 경전을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간에 그 가운데 목적하는 바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단위가 놓여진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대한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중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대한 것을 따지고 보면 그것은 역시 신, 구, 의, 삼업에 크게 관계되어 있다. 몸으로 하는 노릇, 입으로 하는 말, 뜻으로 생각하는 것 — 의지력과 정신 작용이 세 가지가 혼탁해지면 그 사람은 잡된 사람인 것이고, 반대로 이 삼업이 맑고 청정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업을 말한다. 몸짓을, 입으로 하는 말씨를, 정신 작용을 밝혀 나간다.

그러나 아주 텔레키트한 것은 몸이란



죽로지실 앞마루에서 서도(書道) 중인 생전의 효당 스님.

형식적인 것인데 이 몸의 일부분인 상대 기관에 정신이 작용하여 형식 속에 정신적인 것이 내포되어 표출되는 것이 인간의 말이다. 하여튼 삼업을 말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문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몸의 가짐새를

“
몸의 가짐새 맑히고
말은 자비를 갖춰서
삼업 맑히면 청정해져
정신 작용 맑혀 나가야

맑히고, 다시 말하여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은 어떤 천으로 마련되어 몸을 가리고, 그런 다음 입은 양치질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하여 자비스럽고 사랑에 가득한 음성을 낼 것인가. 또 이 말은 자기의 의식작용, 자기의 정신 작용으로서 어떻게 흘러나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된다. 어떤 학문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불교에서 목표하는 바는 몸과 말과 정신작용으로서의 뜻,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는 것이다. 첫째는 이를 깨끗이 해야 된다. 이를 청정히 클리어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맨 먼저 문제 되는 바다. 정삼업 진언은 다음과 같은 주문(呪文)이다.

“음 사바빠바 슈파살빠달마 사빠빠바

슈도함” 이를 세 번 외운다. 이 범어(梵語)의 주문은 물론 말인 이상 뜻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일정한 격식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행원례(行願禮)를 꾸미는데 있어 내가 지금으로부터 35, 6년 전에 그 조직체계(組織體系)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인생이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함을 이룬다.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왕래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왕래에다 표준을 삼아 행원례의 수차 그대로 자기 근행(勤行)의 스케줄을 짜 본 것이었다.

정삼업(淨三業)이란 이룰데만 사람의 왕래를 위해 집을 깨끗이 소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집은 두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실상은 우리의 몸이 인간의 집이다. 국가도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집이다. 그래서 첫째로 이 우리 인간의 집을 깨끗이 해 두어야겠다는 것이다.

집을 깨끗이 소제한 다음에는 이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기 향내가 어디도록 향(香)을 피워 놓는다. 부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향을 피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재정복)> 전 3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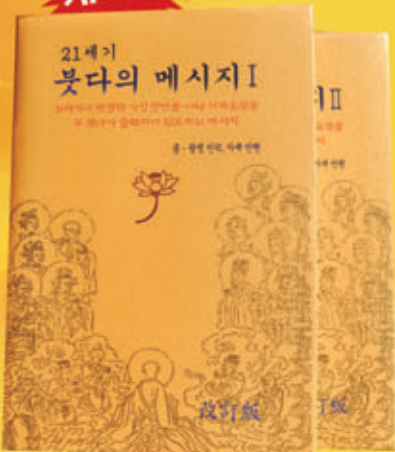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견성은 머나먼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책이 여러분을 정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개정판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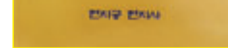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근간)

서연 이대성 저 (철학박사, 대학교수)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엄력(嚴力),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도리천궁신통문 중에서)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인행(因行)과 서원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업의 과보를 밝혀서 그 과보로 가게 되는 지옥의 실재를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승경전이다. 이 책은 이전 어떤 해설서와도 차원이 다른 영산불교만의 깊이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장보살님의 실재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 13품을 각 품별로 자세한 해설을 달았고, 지장경을 봉독함으로써 10선을 행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배우고 실행하여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왜 불교인가(근간)

대현 김주영 저 (인력개발학 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정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질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역작이다.